

***여러분은 여러분의 걱정을 선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걱정거리들 중 일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우리의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큰 불안감을 느끼지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A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실을 믿고 살았다면, 우리는 걱정을 덜었을 것입니다.

- 행복의 네 가지 수준을 기억하십니까? 70%의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적인 행복의 레벨로 1단계와 2단계에 안주해 있습니다. 레벨 1은 즉각적인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게임과 재미에 집중하고, 그것들이 빠앗길 때, 우리는 지루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불안은 아니지만, 더 성숙한 세계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일부 젊은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성취와 성공이라는 레벨2 행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비교 게임을 합니다. 누가 더 낫고, 집도 더 크고, 차도 더 좋고,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지? 우리가 지거나 실패할 때, 엄청난 불안감이 생깁니다. 요점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수년 동안, 나는 내 불안의 대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 고군분투하여 영적으로 잘 해나가지 못하는 신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짊어져서 저를 벅차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세계관과 거기에 따른 우리의 걱정거리의 일부를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결혼한 사람들과 미혼인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유와 근심에 대해 글을 씁니다. 그는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1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January 30-31,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3; Ordinary Time, Year B, 4th Sunday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1코린7:32-34).

- ‘걱정 없이’란 세상의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 본성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셨을 때처럼 어떤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 우리는 결코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서 가족을 걱정하는 것은 옳습니다 - 여기서 불안은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악마는 “나는 도움이 안되. 어떻게 해야하지?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있어.”라고 말하며 필요없는 세계관의 걱정을 더할 것입니다. 이 불안함 속에 하느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보이시나요? 바오로 성인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 다른 예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가? 그들은 걱정해야 하지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신경써야 합니다. 이것은 비록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 바오로 성인은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 헌신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때, 세상의 근심은 적지만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걱정’이란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뜻합니다.

- 그는 이것을 ‘세상의 일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는 ‘유부남’과 비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결혼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이일에 도달할

2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January 30-31,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3; Ordinary Time, Year B, 4th Sunday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은 성스러운 부부의 좋은 역할 모델을 갖지 못했고, 성인이 되려는 다른 부부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것이 종종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남편과 아내는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은 하느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분께 더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착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총각은 어떨까요?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 자유롭게 선택되었습니다. 누구나 성자가 될 기회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헌신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서 객관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놓여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느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존스와 경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결심하면 그들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그들이 이 세계관을 벗어나 산다면, 그들은 더 침착하고, 감사하며, 더 적은 논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이 사람은 1994년에 사망한 제롬 르준 박사입니다. 그는 결혼해서 다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번은 그의 연구가 다운증후군의 산전 진단을 위해 허용되자, 그는 낙태를 위해 이것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르준은 앨런 상을 받은 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낙태의 도덕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혼을 내렸습니다. 르준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 나는 노벨 의학상을 잃었소’” (https://en.wikipedia.org/wiki/Jérôme_Lejeune).라고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기의 90%가 낙태되고, 프랑스는 96%, 아이슬랜드는 99%입니다. 이에 대해 르준은 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된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https://catholicinsight.com/without-fear-the-pro-life-witness-of-dr-jerome-lejeune/>). 이 주 전,

3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January 30-31,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3; Ordinary Time, Year B, 4th Sunday

그는 교회로부터 미덕의 영웅적 존재로 인정받았고, 이제 성자이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르준은 그의 직업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생명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오로 성인은 누가 자유로운지에 대한 요점을 되풀이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7:34).

- 처녀들은 하느님께 더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결혼한 제 친구들보다 더 자유로운가요(<http://thejustmeasure.ca/2019/06/30/commitment-gives-freedom/>)? 답은: 자유로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는 결혼하는 자유를 포기해서 하느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에 자유로워 졌습니다!
 - ‘사운드 오브 뮤직’을 기억하시나요?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할 때, 수녀들이 모두 철창 뒤에 박혀있던거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갇힌건 아닙니다. 수녀원에 창살이 있는 것은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삶을 선택했고, 좋은 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같은 도덕적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불안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너무 자유로워서 길을 잃습니다. 도덕적인 지침과 목적이 없다면, 그들은 최고의 것들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좋은 우정을 베풀고, 정착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이를 갖는 것이 자유를 줄까요? 저는 몇몇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에 대한 약간의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께서 제공하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니퍼와 그녀가 대가족을 가지는 것에 대한 그녀의 부름을 기억하시나요 [heart/\(http://thejustmeasure.ca/2021/01/01/begin-again-by-going-to-the-\)](http://thejustmeasure.ca/2021/01/01/begin-again-by-going-to-the-)? 그녀는 자녀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집을 방문할 25년 후, 병원에 입원해 있을 50년 후를 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을 때 평화를 찾았습니다.
 - 바오로 성인이 처녀들이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 질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이미 우리의 모든 몸이 성전(1코린 6:19)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결혼한 부부들도 자유입니다!

바오로 성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의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1코린 7:35). 그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자유를 없애고 긍정적인 자유를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나는 필 박사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본 후 절대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 절대 술에 취하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고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eEsC0TRW4> Start at

30:44). 성적, 성공, 그리고 비교에 대한 근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살아남게 되고, 우리는 서서히 더 많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제나
수녀로서 그분 한분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 그리고 3주 후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태아들을
보호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사람들은 돕는 ‘삶을 위한 40일’을
합니다.

우리 자매 중 한명인 김 로보는, 한번은 그녀가 어린이 병원의 간호사 이기
때문에 여성 병원 밖에서 ‘삶을 위한 40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년 전, 미사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녀는
죄가 있음을 판결받고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남편에게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해야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에 대해 더 많이 기도할수록, 만약 내가 두려운것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이유가 아니라는 결론에 더 다달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일에 동참해야하는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줄리오는 가입을
했습니다. 참여 후 그녀는 “ [삶을 위한 40일]을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평화롭습니다.
종종 공포가 우리를 제지합니다. 우리는 그 판단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 두려움을 느낄때, 성령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셔서 지킬 수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 줄꺼야. 내가 이 과정 동안 너를 꼭 안고
있을꺼야’” (<https://bccatholic.ca/news/catholic-van/pro-life-nurse-witnesses-outside-her-own-hospital>). 이것은
그녀의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정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 대한 근심이 적고,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더 자유롭습니다.

+ 찬미 예수님

1월 30/31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 이었습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모두 기도중 낙태종식에 대해 한번쯤
묵상해 보시고, 원하시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오직 하느님 한 분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하소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당신의 은총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태아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낙태의 위험 앞에 놓인 모든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낙태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게 하소서.

태아들의 수호자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